東亞日報

發行所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發行兼編輯人 主幹
印刷人
電話光化門 [illegible] 振替口座京城 [illegible]
購讀料金 / 廣告料金 [illegible]

佛國의政策과 國際的不安 英國의新軍備充實

現下에在한國際的不安은그原因이여러가지가잇지만은 가장根本的動源은 獨逸의賠償金額이過多함에在하나니 獨逸의國力으로는事實上不可能한 負擔을規定한講和條約이 今日의禍根을胚胎한것은 今日識者가共認하는바이다 英國은徹底히獨逸의破産을坐視하지못할經濟的因果關係가잇고佛國은所定한金額을獨逸에서收得하지아니하면大戰中에受한打擊을다시恢復하기極難하니 포앙카레氏는特効를收入하지못할金額을多少豫想하면서도 無理한軍事的占領을斷行하고一方에서는그와갓흔過度한行動은結局獨逸의破産을招來할이라하야 緊張한注意를不懈하는것은現今英國이佛國에對하는態度라 外報에依하면 英國은六月十三日佛國에對하야質問書를發하얏다 六月八日부터同十二日까지數次그政策에關하야 陳述한諸點에 다시明瞭하고完全한說明을要求하얏다는바 그內容中에特히左의二點에對하야委細한說明을要求하얏다고한다―即第一은佛國이獨逸에對하야守勢的反抗을抑壓하기를主張하매 獨逸政府가結局如何한手段을採用하기를要求하는가 第二는守勢的反抗이抑壓된後에 佛國은무엇地方에서如何한形式으로永久的占領을希望하는가하는 條目이엇엇다하고 이에對하야佛國首相은大體로在來의政見을依然히維持하라고하며 一方으로는英國과交涉을遷延식히라고한다 英國은다못外交에만 그치지아니하고新軍備充實에汲々하니 本月十六日秘密裡에서 進水한大型潛水艦은 潛水時의總噸數가三千六百噸이라 獨逸의最大潛水艦에比하야 一千四百噸이크다고한다 그建造費는武裝을除하고 八十二萬磅이오 備砲로는十二吋砲를備設하리라고한다 이에對하야世界의耳目은聳動되엿고이에對하야 英國政府는 大型潛水艦三千六百噸의新造는華府條約에 抵觸하지아니한다고聲明하얏다 그뿐아니라前者에發表된 英國의新加坡의軍事的擴張은이미世人에게新刺戟을與하얏다 이와가치英國은軍備縮少會議가 終了된지一年半에不過한後에다시 新方針과新形式으로 軍備를擴張하고佛國은 只今까지海軍條約을批准하지아니하엿나니 結局은批准을한다하더라도 不少한時日이經한後에實現될것이라 佛國의軍國主義的 政策에對하야他國의質問이잇섯고 그答辯에困窮함을보고 吾人은實로遺憾을不禁한다 이와가치佛國의態度로因하야 大勢에逆轉하야 暗然한中에軍備擴張에赴하는것은 다못英國에만하지아니하고 그影響이米國에及하며伊에及할뿐아니라 事態의趨移如何에因하야서는 日本에도多少間波及할念慮가 現著히보인다 世界平和를爲하야 佛國의過失이多大하다고아니할수업다 勿論英國이나米國이軍備擴張하라고하는그本意로말하면 佛國의頑固한軍國的政策에만因한것은아니다 그와가치單純한受動的防禦의必要에만因하지아니한것은 敗戰할必要도업지만은 적어도 現在國際關係에서는其中에가장重大한刺戟과 動機를與한것이佛國의軍國的對獨逸政策에在하다하노라 然이나이로써 吾人은世界가다시大戰前의軍備競爭狀態로復舊하리라고는밋지아니한다 오직漸次로國內나國外를莫論하고支配階級의地位에在하던所謂強者의運命이衰退하야가는途程에서 順調로進行하지아니하고 中途에서 在來의歷史的惰性으로曲折이發生함에不過하다고밋는다 國際聯盟이나 華盛頓會議의結果로 墜落하야가는支配者의勢力과運命을挽回하기에 多少의姑息的効果는得하얏스나 貪慾에限이업고 我利에狂氣하든列強間에 엇지無事平穩을企望할수잇스리오 오히려今日에幾多의軍備競爭的氣勢가보이는것은 意外의事態가아니오 免하지못할―업지못할波瀾이라고하노라

三夏消寂 (五)

鮮于全

(三)共同生活과共同生産

人은稱하되 吾人의生活團體를共同生活團體라한다 即共同한責任으로써社會를 組成한各個個人은 社會的義務를負하고各히其技能에依하야 耕하는者는耕하며 織하는者는織하며造하는者는造하며 賈하는者는賈하야 耕으로써織을換하며 織으로써 造를換하며 造로써賈를換하며 賈로써耕을換하야 彼此의不便과無有를互相交換하야써 共存의榮을圖하며 各自의幸福을享하려하는것이 今日吾人의有機的生活團體의內容이되며 經濟學上으로分業制度의社會組織이오 交換經濟의特色이라한다 此分業制度의生産組織과 有無交換의社會的便利를共認하는吾人間에서는 耕하는者는耕에盡力하여야可할것이오 織하는者는織에盡力하여야可할것이오 造하는者는造에盡力하여야可할것이오 賈하는者는賈에盡力하여야可할것이다 即百人으로써組成된社會면百人이各히其職業을盡하고 千人으로組成된社會면千人이各히其職業을盡하고 萬人으로써組成된社會면萬人이各히職業을盡하는境遇에 始히吾人의有機的生活體·即共同生活을圖하는吾人의社會는 必히安全하여지고 圓滿하여질것이다

百人으로써組成된社會가百人의勞力을待치아니하고安全한生活體를成키能하며 千人으로써組成된社會가千人의勞力을待치아니하고安全한生活體를成키能하며萬人으로써組成된社會가萬人의勞力을待치아니하고安全한生活體를成키能하리오 十人의生産으로써百人의生活을圖키難하고 百人의生産으로써千人의生活을圖키難하고 千人의生産으로써萬人의生活을圖키難한까닭으로 生産者가少한社會團體에生活難이必至하고 生産力이貧弱한國에國民經濟의繁榮이現出되지못하는것은 必然의事實이되지아니치不能하다

吾人朝鮮社會에 生活難이生하얏고 思想問題로는社會主義가現하얏도다 生活難發生의最大原因이 何에在하냐 社會主義發生의最初動機가何에依한가는 此에吾人이更說할必要가無한지라 此에對하야言及코저하지아니하나 朝鮮人의生活難發生의內部的原因은生産力缺乏에依한者가多하고 思想變化의外部的原因은現在事情環境에依한事이少치아니한가를疑하는吾人은 觀察을經濟的原則에溯하야 生活難救濟方法으로同人同胞의生産力增加를要望하며 健全한社會建設方法으로自力主義 自立精神의發揮를要求치아니치못하겟도다

諸外國의經濟問題와社會問題發生의重大原因은 生産으로부터分配에 即生産은發達되얏스나分配가不平均한缺陷에依함에反하야 朝鮮의經濟問題와社會問題發生의多數原因은 分配보다도生産 即生産이過히도貧弱함에依치아니한가를 疑하는吾人은 同人同胞의生産力增加를目下의重要問題로思하얏노라

吾人의觀測에依하면 朝鮮人의直接經營에依하야 生産되는生産總金額은 農産物에在하야約二億六千萬圓 鑛産 水産 製造工業 其他에在하야約一億五千萬圓 合하야四億一千萬圓의生産額을有하얏스나 此의生産額을 生産關係人 即其生産額을所有하며 消費하는一千七百萬人口에分當하면 一人의平均生産額은僅히二十四圓에不過하야 一年의平均生活費를 二十四圓으로써自足치아니치못할境遇에立하엿나니 文明한社會에서 文明한器具를使用하며 文明한衣를着服하며 文明한食料를需要하며 文明한娛樂을嗜好하는者 엇지 一日平均六錢六厘의小支出로 以上諸種要求의代價를支辨키能하리오

更히言하노니 一個人의生活難은 其一個人에關한生活難이아니오 必히多數人에影響을及할者이며 一個人의幸福은決코自己一個人이獨占할幸福이되지못하고 必히多數人에共分되지아니키不能한關係를有한 今日과如한連鎖相雜의關係가密接한吾人共同社會에在하야서는 有産者나 無産者나 貴人이나 賤人이나 共히 共同的責任과 社會的義務를尊重하야 一個人進하야全社會의共同幸福을期키爲하야 各自의生産力을增加토록心力을用할지로다

先導者 【96】

長白山人

중편(中篇)(一三의二)

마츰내 박춘식은 더욱분개하야 최선학을못듣고 언짠은 소리까지하엿스나 렴참령이

『압다 동생은 글니 나쓰소』

하고 떼어놋는바람에 혼자중얼거리며 방한편구석에가서 말업시안젓다

이러하야 대세는내각을 맛자는편으로 기울어젓다 다만평생에 말이업는류참령과 리참판이라는 일홈으로통하는 리준령두사람은 가타고도 부타고도아니하고 가만히안저서 여러사람의니야기를 듯고만 잇슬뿐이엇다 그러나 그두사람은 대세를움지길힘이 업는줄을 알기때문에아모도 크게주의도 아니한다

최선학은 모든것이 자긔의뜻대로 되는것을 만족해하는드시 한가하게안저서 차를마시고려송연을피엿다 앗가 리선생이굿세게 거절할때에 매우실망하엿스나 리선생이사양하면 렴참령을내세우고 렴참령이 또사양을하거나 실패하면 자긔가몸소나설것을 생각하고는 조곰도근심됨이업섯다 그는 오늘저녁에리선생이 결코 응하지아니할줄는안다 그러나 다수동지가다민당내각의 조직을 희망하는때에리선생이 응치아니하더라도 반다시 다른후보를천거할것을 알고그후보는 렴참령과 자긔와중에하나일것을밋는다그리되면대한협회와 자강회와 타협하야가지고렴ᄇᆡᆨ윤내각 또는 최선학내각을조직하자 한번이리하야 정권이손에 들어오면 한국의일을내뜻대로 할것이라하는 청년다운야심의꿈에취하엿다『빈국의 운명이 내손에달렷고나』하고생각할때에 최선학은 더할수업는자존심과 깃붐을늣겻다

이윽고 리선생과 최선생이권후하야들어와다방안에잇던사람들은 일제히 문으로향하야나가서서로 다토아가며 선생과악수를하엿다 악수를하고 나서도물러나지아니하고 다른 사람나악수하는동안 그것헤 지켜섯다렴참령도 오래간만에 만나는드시힘잇게 선생의 손을잡아흔들며

『차산! 내가아오님께샤죄할것이만소!』하고 군이 담게 열々웃는다

댄나종에 최선학이 약간허리를굽히고 선생의손을 잡으며

『내가가뵐젠데 여러번찻노라고……』하고 이럭거만보내어쿼한것을 샤과한다

최선생을 아는이는 오륙인밧게업섯다 그러나그의일홈을 소개할때에는『네!』하고 한번더주의하여보앗다 마츰내 선생은방한편구석에 부처모양으로 우득하니안졋는 박춘식을보고 그압흐로 걸어가서손을 내어밀엇다 박춘식은억지로하는드시 닐어나 선생의손을한번 쥐어보고는말업시 도로걸러안는다 그리는동안 사람들은 선생의뒤人모양을 바라보앗다『재상이로고나!』하는생각으로 바라본것이다

社告

郵便規則의改正으로因하야 郵送讀者에게發送하는新聞封皮에는到着郵便局所名을表記함을要하는바今後地方에서本報購讀을請求하시는人士는先金送付同時通知書에는住所氏名을詳記하는以外에新聞의配達을受할郵便局所名을明記하심을要望

東亞日報社

醫丹 一貼金十錢 特製의 價中良藥

萬靈回生水 五十錢

大同齒磨粉 五錢 定價

大同藥房本舖 振替京城三〇八番 六十餘種藥製造販賣元 各樣藥種商

借家廣告 左記新築貸家有 月貰八圓 保證金二十圓 府外孔德里一八八 山鳥

京城瓦斯會社製骨炭 龍山骨炭 其他石炭 各種 京城府漢江通八番地 山田商店

朝鮮明倫錄 [illegible]

職業 豊國總本店

毛生하는 博士의藥 후미나인 毛生藥
毛生藥『후미나인』은皮膚科專門大家山中醫學博士가發見創製한東西洋唯一의名藥이라 普通流布하는藥과는天壤의差異가잇슴니다 所謂禿頭病, 各種의脫毛及薄毛, 皮膚病禿, 眉毛가薄한분에게絶對한効果가잇슴니다
定價, 五十錢●九十錢●一圓六十錢●三圓●五圓五十錢
發賣元 東京市芝區田村町一八 東京藥院 大阪市北區老松町 東京藥院
●朝鮮文說明書無代進呈

●電話變更紹介●

朴德裕洋靴店 電話光化門一一八三番 京城寬勳洞一六九番地 (舊二四八三番) 振替京城七九八五番

友助堂時計舖 電話光化門五〇二番 京城南大門通一丁目 各種時計 各種眼鏡 各種指環 製作販賣 振替一八九五番

國一館 電話 本局二六五番은光化門三六五番 本局二九〇番은光化門六八番 京城府觀水洞二十一番地 朝鮮料理

梁柱玩 電話光化門五五〇番 京城府蛤洞三三番 物産委託業 (舊二六三〇番)

明月館 電話 本局八六二番은光化門八六二番으로 本局六四番은光化門六四番으로 京城敦義洞一四五番地 朝鮮料理元祖

博愛堂藥房 電話光化門九四八番 京城鍾路二丁目五番地 梅毒六〇六號代用新藥ヨトカリ丸本舖 (舊三五一番) 振替京城六一九八番

廣昌商會 電話光化門五〇七番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百九番地 綢緞 布木 毛物 貿易商 主 趙舞用 (舊二五一一番)

共盛商店石鹼部 電話光化門五三八番 京城府授恩洞五四番 世昌비누 세탁비누 製造元 主 金奉根 (舊二六二〇番) 振替京城七一三〇

朱輔榮商店 電話光化門二五二番 京城鍾路三丁目八五番地 綿布 北布 生綢 振替京城三六二三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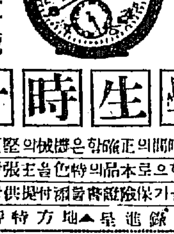
漢城精米所 電話光化門貳三番 京城府竹添町三丁目二番地 主 秉學 電話一五七七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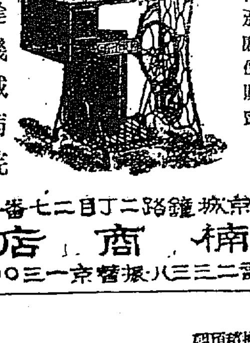
蚊帳 모긔장 壹毫不加正價金에浩氣的大發賣 京城南大門通四丁目 元豐號

當選謝禮
今回仁川商業會議所評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各位의深厚하신同情에因하와幸히當選의光榮을蒙하얏삽기茲에紙上으로써謹히謝意를表하나이다
大正十二年六月二十八日
京城電氣株式會社仁川支店 株式會社奧田精米所 朝日醸造株式會社 吉田秀次郎 平山松太郎 中村藏 太田忍 辻川重平 坂倉浩 堆伊富 力武嘉次郎 大阪商船會社仁川支店

李王殿下同妃殿下
에압서台覽의光榮을賜하압신
連日滿員感謝◎每日正午十二時午後六時二回開演

寫眞은『사자』獅子三頭의 테ーブル乘曲藝의現場
團體觀覽은特別入場料割引有하오니至急御照會하시오
猛獸놀리는사람이나가 大山崎 矢野動物演藝部 (京城黃金町二丁目(東洋拓殖會社前空地)


獨逸製白銅片十六形 치마票八個年保險付
特價四圓五拾錢 ▲地方은代金引換함
學生時計
時間의正確함은機械의堅實 ◎한우리本品의特色을主張함 ◎保險證書附提供함
目錄進呈▲地方特待
京城鍾路一丁目七一番地 信鍾堂時計店 主 玄錫基 振替一一八九二番

各種裁縫機械特別廉價販賣 其他裁縫用品 針、油、部分品 都散賣 쓰던裁縫機械 買入 部分品、針、油 部賣定價表進呈

附屬 裁縫機械病院
京城鍾路二丁目二七番 楠商店 振替京城一三二八〇〇

海婦人
헨릭 이브센 原著 李相壽 譯
[illegible]
四六判 定價八十錢 洋裝美本 送料十一錢
京城府堅志洞三二 振替京城七六六〇番 漢城圖書株式會社

普通學校生徒用 自習參考書
◇이冊을當하면여러학校學生徒들을爲하야 [illegible] 自習하오參考하이오니
◇優秀한이되고자하는여러분이이맘에一冊이나이다
◇여러분은用意하야一冊식사다가보시고 [illegible]
普通學校 國語自習參考書
普通學校 國語七八自習辭典
普通學校 朝漢自習參考書
普通學校 朝漢文熟語解釋
尋常小學 國語模範自習書
尋常小學 國語自習參考書
普通學校 國史自習參考書
普通學校 地理自習參考書
普通學校 理科自習參考書
此外에도各種五冊試驗 [illegible]
京城府慶雲洞百番地 槿花社 振替口座京城第八二五七番

朝鮮銀行 總裁 美濃部俊吉
本店 京城府南大門通
資本金八千萬圓
支店出張所 內地 東京 大阪 神戶 下關 朝鮮 釜山 大邱 仁川 平壤 鎭南浦 元山 木浦 滿洲 大連 奉天 長春 哈爾賓 支那 上海 天津 靑島 [illegible]
右外倫敦、紐育、巴里其他內外國要地에去來先이有함

價略表

[illegible]

英佛關係頗危殆

英首相의 率直한 意見發表

倫敦來電에 依하면 英政府는 佛國의 賠償及『루르』解決案에 對하야 如前히 回答을 送치 아니하얏스며 首相『뽈드윈』氏는 近日中에 列國으로부터 確定한 通知를 接受치 못하면 大膽率直한 意見을 發表할 模樣인데 다만 白耳義의 政局이 安定치 못한 故로 暫時 忍耐를 繼續함에 不過한바 萬若『루니쓰』氏가 此次 內閣을 組織하기에 成功치 못하면 更히 數日을 待할 터이나 英國은 直時行動을 起할 터이라는데 目下 白耳義의 政局은 解散될 形勢도 不少하더라(紐育二十八日發)

英, 獨逸의 抗議公文을 受領

英國外務省에서는 下院에 對하야 占領地域에 在한 佛國의 脅威的 行動에 對하야 抗議한 公文을 獨逸로부터 受取하얏다고 言明하얏스나 然이나 其內容을 發表하며 又此에 對하야 意味를 附하기는 拒絶하얏더라(倫敦二十九日發)

英空隊擴張과 非難

「戰爭의 新時代惹起發端」

目下開催中인 勞働會議에서는 一協議案을 可決하야 英國航空隊의 擴張을 非難하야 此는 佛國과의 競爭을 起하야 戰爭의 新時代를 惹起하는 發端을 作하는 것이니 英國은 空中軍備를 撤廢할 目的으로 外國과 會議의 開催를 要求할 것이라 하얏더라(倫敦二十八日發)

米空軍擴張中止

英佛間에 空軍擴張競爭의 氣勢가 有함에 對하야 米國陸軍卿『위크스』氏는 去月二十八日 聲明하야 曰「米國은 英國에서와 如히 空軍의 大擴張을 行코저 考慮치 아니한다」하얏더라(紐育二十八日發)

佛航空豫算可決

佛下院에서는 熱烈한 討議가 有한 後 二億一千三百萬法의 航空隊豫算을 可決하얏는데 此에 對하야 陸相은 最初 三千六百萬法이 든 것을 上程할 時에 二億一千二百萬法으로 增額한 것은 英首相의 航空隊擴張 聲明에 對應하는 軍備擴張競爭이 아니오 問題는 獨逸이니 目下 獨逸은 全力을 航空隊의 增設에 集中하는 터이라 此危險을 無視하는 것은 狂人의 行動이라고 答辯하얏는데 上院도 下院의 決定과 如히 航空豫算을 可決하얏더라(巴里二十八日發)

兩黨合同遂否決

英國勞働黨과 共產黨

目下 倫敦에서 開催中인 英國勞働黨會議에 提出된 勞働黨과 共產黨과의 合同決議案은 代議員의 投票에 附하얏던바 贊成 三十六萬六千票, 反對 二百八十八萬票로 否決되얏더라(倫敦二十七日發)

「皇室은 憲法上無要」

對英勞働黨態度明示要求內容

『뎃플보로-』의 委員會는 勞働黨大會에 動議를 提出하야 勞働黨이 英國皇室에 對한 態度를 明示할 事를 要求하야「皇室은 旣히 英國憲法中 必要한 分子가 아니라」고 斷言하얏더라(倫敦廿九日發)

新嘉坡建設費案

英首相『쏠드윈』氏의 答辯槪要

下院에서 海相『아메리-』氏는 自由黨議員의 質問에 答하야 日 新嘉坡의 船渠建設費는 約 百萬磅의 豫算인바 浮船渠와 同一한 船渠의 建設費도 大略 同額을 要할 터이며 又 只今 設計中인 船渠는 華府海軍條約에 依하야 許可된 最大限度의 戰艦 二隻을 同時에 收用하도록 建設할 計畫이라 云하고 海相은 更히 今後 十個年間 新嘉坡 根據地及 海軍工廠에 要할 海軍豫算에 計上될 經費總額은 現在의 槪算으로는 一千五十萬磅이라 하얏더라(倫敦二十八日發)

近東會議無成績

土耳其의 立脚點固執으로

『로-산누』會議는 全然 世人의 期待에 反하야 水曜日外지 何等의 協定도 遂치 못한바 此는 土耳其側이 經濟及財政的 諸問題에 關하야 其立脚點을 固執하는 所以라 터라(倫敦二十九日發)

英米態度强硬

酒類沒收問題로

酒類沒收問題에 就하야 英米는 各各 其態度를 固執함으로 妥協하기는 難한 模樣이더라(華府二十九日發)

加州法院의 判決

加州高等法院에서는 日本人이 白人과 契約을 締結한 後 白人의 農場을 開墾하고 賃金을 受取하는 同時에 將來의 利益을 半分하는 것은 千九百二十年十一月 州議會에서 可決한 外人土地法의 違犯이 아니라고 判決하얏더라(桑港二十八日發)

四十五名溺死

汽船沈沒

『그라사쓰웰쓰』沿岸附近에서 汽船『쓰마트라』號가 沈沒되야 四十五名의 溺死者를 出하얏더라(倫敦二十九日發)

駐英露國代表

옷페氏說有力

『크라-』에서 探知한 바에 依하면 英國에는『크라신』氏는 再次 露國代表首席委員으로 倫敦에 來키는 不能하다 하며『크라신』氏의 後任者는『옷페』氏라는 說이 有하나『옷페』氏는 目下 日本政府와 會商中임으로 當分間 其後任이 되기는 難하리라더라(倫敦二十八日發)

曹總統選擧催促

曹錕氏는 軍務所長을 北京으로 派送하야 總統選擧를 催促하얏더라(上海二十九日發)

反直隷議員의 增加

反直隷派의 議員이 漸次 增加되야 旣爲 其半數以上에 達할 模樣인바 其中 八十名은 一兩日中에 南下하리라더라(北京二十九日發)

四氏提携說眞相

黎, 段, 張, 孫 四巨頭의 提携說은 世上에서 傳함과 如히 深厚하지 아니하며 單히 各巨頭의 幕僚가 自己의 袖領을 出하야 其余威를 得코저 奔走함에 不過한 것이더라(天津二十八日發)

羅氏無罪出獄

公判中이던 羅文幹事件의 被告人 羅文幹과 黃體廉 兩人은 無罪로 宣告되야 卽日出獄하얏더라(北京二十九日發)

政費不撥要求

黎總統對稅務司

黎元洪氏는 總稅務司로 書面을 送하야 北京의 政情이 恢復되기까지 政費의 供給을 中止하라고 要求하얏더라(北京二十九日發)

鐵道警備通告

外交部에서는 二十八日 外交團首席公使에게 通牒을 送하야 政府는 京漢 津浦 二大鐵道의 警備를 完全히 하기 爲하야 交通部에 鐵道警備隊를 新設하고 顧問으로 瑞典人「룬데뉴」氏로 保安隊敎官을 囑託하얏다 通告하얏는바 右는 臨城事件이 發生한 結果 外交團에서 協議中이던 鐵道警備에 關한 要求를 防止키 爲함이라더라(北京二十九日發)

西原借款問題

西原借款의 延滯利子 八百萬圓에 就하야는 臺灣, 朝鮮, 興業 三銀行 側에서 時期가 마참 上半期 決算期에 相當함으로 爲先 何等의 措置를 行할 必要가 有하다는 意味로 大藏省에 對하야 預金部資金中으로부터 八百萬圓의 支出을 要求한바 大藏省에서는 아직 何等의 決定이 無하나 放任치도 못할 터인즉 預金部의 周旋으로 興銀의 債券을 發行하야 此의 善後措置를 行하고 中國側에 對하야는 政局이 安定됨을 見하야 利子借款의 形式을 取하든지 又는 他方法으로 交涉을 開始할 內意이더라(東京電)

日露會議와 大難關

日本側의 尼港問題其他 露國側의 正式承認要求

廿八日會議第一日經過續報

二十八日會議에서 川上全權이 劈頭에 目下 滯日中인 露國査證官 一行을 更히 數日間 滯留케 하기를 望한다고 述한 後 日本漁民에게 對한 影響을 說明하야 撤退를 中止하라 한바『옷페』氏는 此를 諒解한다 하얏고 此後 本論에 入한바 日本側에서는 尼港事件의 解決과 國際信義問題를 主張하고 露國側에서는 勞農政府의 承認을 得코저 하는 意向인데 此가 如何히 解決될는지는 豫測키 難하나 如何間 今番 交涉中의 最大難關이더라(東京電)

第二日인 廿九日

尼港問題로 詰難

廿九日의『옷페』氏及 川上全權의 會商은 實로 三時間半에 亘한바 尼港事件及 樺太問題는 本交涉의 核心임으로 如此히 長時間을 要한 模樣인바 當日은 尼港問題에 就하야 川上全權은 彼의 虐殺에 對하야 露國은 當然히 其責任을 負할 것인 것을 力說한데 對하야『옷페』氏는 當時 露國에서 如斯한 慘劇이 惹起된 것은 不得已한 事勢이라고 應酬하얏고 露國은 如斯한 問題에 就하야 責任을 負키 難하다 하고 函館 漁者가 勘察加에서 露人을 虐殺한 것과 大輔丸과 江連事件을 引證하야 川上氏에게 應答한 듯한데 二十九日에는 尼港事件의 序幕으로써 終了한 듯하더라(東京電)

樺太問題附議

二十九日의 日露交涉은 爲先 樺太問題를 最初로 議한바 川上全權은 樺太의 駐兵理由及 其處分方針에 就하야 日本의 希望條件을 約 一時半에 亘하야 縷述하얏는데 其內容은 從來 日本이 主張한 바와 如하다 하며 尼港事件의 根本的 解決을 要望하고 日本의 駐兵을 撤退할 境遇에는 相當한 代價를 要求함이라 하나『옷페』氏는 此에 對하야는 同意치 아니하야 各各 自己의 意見을 主張하얏는데 三十日會議도 依然 樺太問題에 就하야 交涉을 行한 後 更히 尼港問題를 商議하기로 하얏더라(東京電)

薩哈嗹問題도 討議

外務省發表 二十九日夜 兩國代表는 二十九日會議에서 薩哈嗹問題의 全般에 亘하야 意見을 交換하얏는데 出席者는 前日과 如하얏더라(東京電)

川上氏經過說明

午後四時三十五分에 會議를 終了하고 出한 川上全權은 新聞記者에게 對하야 今日 會議는 尼港事件과 駐兵問題에 關한 商議인바 此問題는 彼此의 關聯이 有한바 今日은 主히 駐兵問題를 論議하얏노라 陳述하고 川上氏는 五時十五分에 外務省으로 向하얏더라(東京電)

査證官滯留問題

査證官滯留問題에 就하야는 川上代表가 希望한바『옷페』氏는 考慮하야 露國査證官 七名中 二名가 日本에서 必要한 時期外지 滯留하게 하얏더라(東京電)

本會議地는 海港

目下 進行中인 日露豫備交涉이 圓滿히 進捗되야 將來에 萬若 本交涉을 開催할 境遇에는 本交涉의 會議는 浦鹽에서 行하기로 大略 內定되얏더라(東京電)

藤子의 暗中飛躍

後藤新平子는 日露修交問題로 只今은 兩國政府間의 豫備交涉으로 移케 되얏슴으로 今後는 傍觀的 地位에 在한다고 揚言하나 後藤子는 豫備交涉의 成立을 切望하는 同時에 玆에 政界에 活躍할 機會를 捉할 意圖가 熾烈하야 猛烈한 暗中飛躍을 試하야 尼港事件問題에 就하야는 特히 陸軍側과 田中大將에게 囑하야 此의 緩和에 努力中이라더라(東京電)

獨使옷氏訪問

獨逸大使『소르프』氏는『옷페』氏를 訪問하고 三時間半에 亘하야 會談한 後 七時二十分頃에 辭去하얏는데 獨大使가 直接 訪問한 것은 何等 重要한 意味가 有할 터이며 單히 大使夫人의 旅行에 對한 謝意를 表한 것으로는 時間이 너무 長久하얏다더라(東京電)

學長認可取消

紛糾한 東洋大學

文部大臣은 二十九日 私立大學校令 第七條에 依하야 東洋大學長의 認可를 取消하는 同時에 其理由書를 發表하얏더라(東京電)

田付公使赴任

今番『브라질』大使로 新任된 前和蘭公使 田付七太氏는 去月三十日에 單身赴任하얏더라(東京電)

日貨排斥對策

各團體集合協議

日貨排斥對策에 就하야는 過般來 日華實業協會, 日華協會, 華商聯合會等 各團體에서 協議中이든바 各團體의 對策이 決定되면 聯合協議會를 開하고 此를 彼此 對照하야 至急히 具體案을 作製할 터이라더라(東京電)

辯護士試驗

八月末에 擧行

例年 九月에 入하야 開始되는 辯護士試驗은 本年에는 八月末로부터 九月初에 亘하야 擧行될 터이라는데 其理由는 每年 試驗場으로 充當하든 東京帝大는 九月부터 修繕에 着手할 터임으로 試驗場은 一橋商科大學을 試驗場으로 하기로 決定한 것이나 同校는 九月十一日부터 授業을 開始함으로 試驗期日을 速히 하게 한 것이며 高文試驗도 八月二十日부터 開始한다더라(東京電)

春繭豫想增加

六月十五日 現在 東京外 十三縣의 春蠶收繭豫想高는 千八百八十三萬千九百十一貫으로 前年同期 收繭高에 比하면 百八十七萬千九百六十貫(一割一分)의 增加이며 又 此를 前回에 發表한 것과 合하면 三千二百四十九萬七千六百十八貫으로 先年實收入에 比하야 二百四十八萬千六百五十一貫(八分三厘)의 增加이더라(東京電)

全鮮稅金平均

一人當二圓餘

直接稅及 間接稅를 勿論하고 年年 增加하야 昨今과 如히 財界가 窮迫한 時에 對하야는 到底히 此를 負擔키 難하다는 苦言이 處處에 起하는 中인데 玆에 諸稅公課負擔額을 調査하면 左와 如하더라

負擔額平均表

(京城府分은 大正十一年度 其他는 本年度)

	全鮮平均	京城의平均
戶數	三、三〇八、六四	五七、〇三九
人口	一七、四五三、九八	二四〇、七九九
負擔額	四一、八六五、〇五六	三、三二三、八〇四
一戶當	一二、六五	五五、八八
一人當	二、三九	八、三九四

一, 全鮮平均은 國稅, 地方稅, 郡稅, 面賦課金, 學校費賦課金, 學校組合賦課金을 合計平均한 者

一, 府에 在한 平均은 前項에서 面賦課金을 除한 者

京城府負擔額

	國稅	地方稅	府稅
朝鮮人	一〇一、一四四	八七、八五二	三〇、六八二
日本人	二九一、二〇五	一一〇、五九七	四九七、六〇四
外國人	一〇、三三五	八、二六一	二四、三五〇
一戶當平均			
朝鮮人	二、四九〇	二、一五一	七、八〇七
日本人	一七、六七五	六、〇九六	二七、四五三
外國人	三、六八二	一〇、一三三	二九、九三六

財界縱談

鮮銀總裁의

昨年八月부터 東京에 滯在中이든 鮮銀總裁 美濃部俊吉氏는 二十九日 午後七時五十分에 入京한바 氏는 財界에 關하야 左와 如히 語하더라

今回의 入京은 決算이 主要目的이며 七月十日外지는 京城에 滯在하고 其前에 一次 滿洲에도 行코저 하노라

▲ 滿洲合同銀行은 資本金 三千萬圓으로 하고저 하나 當行에서는 株는 持치 아니하고 다만 株를 作하야 創立을 援助할 뿐이오

▲ 滿洲救濟資金은 大藏省預金部로부터 當行과 東拓에 四百萬圓式 融通하고 當行과 東拓은 共히 此에 八百萬圓式을 出하는 外에 東拓은 更히 四百萬圓을 添付하야 都合 一千八百萬圓의 融通으로 할 터인바 大藏省의 利率은 七分이며 此에 手數料 五厘를 加하야 七分五厘로 한 後 相對側의 物件性質과 種類에 依하야 八分乃至九分四五厘의 各樣으로 整理資金을 出할 터인바 五厘假量 高할 터이나 아직 方法이 決定치 못한 故로 的確히 明言키 難하며 從來 何處에 幾何로 金額을 豫定치 못한 故로 判明치 못하나 合同銀行에는 勿論 其他 銀行에도 旣 貸出한 것을 低利로 借換하되 資金이 潤澤케 되야 總히 潤滑케 할 터이며

▲ 私鐵合同資金 私鐵合同에 就하야는 社長이 何人이 될는지는 總督府에서 하는 것이오 當行에서는 關知치 못하는 바이며 事業資金으로 社債를 募集하기로 한바 아직 確定된 것은 아니나 理想은 相當한 額數의 社債를 募集할 希望이나 補助金의 八分을 保證하야 줌으로 社債도 八朱以上으로는 建設費를 消化하기 不能한 것이 問題가 惹起되는 故로 不可한바 如何間 根本方策이 決定치 아니하고는 鮮銀에서 一時融通하는 形式으로 募集할 터인데 本年度로 六百萬圓假量이면 可할 듯하나 此를 全部 內債에 依할는지 外債에 依할는지 決定치 아니하얏스나 內債로 하면 九分以下는 困難하고 手數料 七分五厘假量으로 成立될 듯한 外債에 依할는지도 未知이나 元來 外債는 只今은 廢價이나 社債에 貼用할 印紙稅는 百分之五이라는 高率인 故로 如意치 못할뿐더러 又

▲ 海蔘威紙幣禁止問題는 金貨로 交換하기는 不可能하다고 抗議한바 當局에서 調査한 바는 約 五六百萬圓이오 露國側의 調査는 一千二百萬圓의 同地方流通額이 有하야 事實上 金融의 絕對要求가 되는 故로 露國側에서도 無理히 流通을 禁止키는 難할 뿐 아니라 此는 中央政府의 訓令이며 海蔘威에서는 强硬히 主張치 아니한다는 模樣이오

▲ 移管問題는 重大問題이나 아직 交涉을 受한 事가 無하다 하야 諾치 아니하고

▲ 當行의 定期配當은 依然 八朱로 하리라는 說도 有한바 六朱로 하리라는 命令이나 有하얏다 傳하나 何如間 當期는 八朱로 하고저 하며

▲ 理事의 補缺選任은 定款에 二名으로 할 수도 有하나 政府側 規定으로는 一名임으로 아직 決定치 아니하얏스나 部外로부터 選任하는 것도 不可하다는 輿論이 有한 것은 詳知하는 바이며

▲ 職制改革은 行하나 行員의 交迭에는 一般임은 아니라 人員의 過多로 그다지 問題도 되지 아니할 것이라 云云

京取改則內容

京取營業細則改正의 件은 今回에 許可되야 昨三十日 後場取引 七月二十五日 受渡分부터 適用할 터이라는데 內容은 旣報와 如하거니와 其改正要點은 左와 如하더라

一, 第八條 賣買取引期間은 從來 十五日以內를 一個月以內로 改함

一, 第十三條 證據金은 從來 本證據金 及 追證만이엇든 바 此에 增證을 追加하고 加之 本證은 價額의 百分의 二十을 限度로 하든 것을 百分의 五十外지 擴張하고 增證은 本證의 二倍外지 徵收할 事를 得함

一, 第十四條 第二項 身元保證金은 證據金이 納入時限에 不適함에 不過하든 것을 今後는 此를 卽時 從來 市場에 對한 債務를 擔保함은 勿論 賣買의 擔保로 看做함

一, 第十五條 算定價格은 從來는 前日의 後場及 當日의 前場의 寄引平均으로 作成하든 바 計算의 最終價格位以下 五捨六入한 者를 算定하야 但 算定의 提出受領한 目的으로 한 强弱의 爭이 甚할 境遇에는 理事의 決定으로 합

米國獨立祝賀

貞洞米國總領事館에서는 今 一日 同國의 獨立紀念日임으로 總領事『밀러』氏는 午前十時부터 同十二時外지 一般官民의 祝賀를 受한다는바 略服도 無妨하다더라

西湖工事線閉鎖

咸鏡線南部 西湖津 間 鐵道建設工事線은 工事가 終了되얏슴으로 去三十日外지 閉鎖하얏다더라

朝鮮上海直接航路

有吉政務總監의 慫慂에 依하야 近海郵船에서는 朝鮮上海間에 定期航路를 開始코저 調査中이든바 釜山을 基點으로 하야 荷物이 不足할 境遇에는 日本內地를 基點으로 하야 朝鮮을 經由케 될 터인데 元來 上海航路는 日本郵船의 獨占임으로 近海郵船이 同航路를 開始하는 것은 結局 日本郵船에게 同航路를 讓渡케 될 것이라 日本郵船은 不遠間 同航路를 開始하리라더라(東京電)

辭令

[illegible]

橫說竪說

[illegible]

消息

(二十九日附東京電)

[illegible]

社告

電話番號變更

光化門電話分局 開設된 結果 七月一日부터 本社의 電話番號가 左와 如히 變更되얏습니다

光化門 一三四五番(編輯局)

光化門 一三四六番(編輯局)

光化門 一三四七番(營業局)

光化門 一三四八番(庶務局)

光化門 七二〇番(京城販賣所)

光化門 八二一番(東部出張所)

東亞日報社

商況

[illegible]

仁川期米

昨日 阪地步調는 前場初付 戰步로 五十三錢外지 反하야 五十三十四圓四十五錢에 始한바 此를 錢安으로 進退할 뿐이러니 大阪四節 低價로 五十錢安에서 細刻하다가 五十錢이 止價이오 後場初付는 [illegible]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張最根

大阪株式延取引

[illegible]

株式市場

諸株皆保勢 大新亦保勢

[illegible]

京株賣買

[illegible]

各地繭時勢

[illegible]

新市豫想

[illegible]

仁川期米市場

月末場面

[illegible]

ClibPDF - www.fastio.com

六月三十日 低移納會

今朝天候는雨後微雨의曇天으로 大阪電報는此를確하게傳하엿더라 …

喜雨는全鮮에

갈슬친다면일천만원어치

감음옷비가되여

하로동안에나린비에도 시내에는피해가잇섯다

이십구일 아참부터 시작한 비는 인천압바다 소위경성만에 가오지안켓고 각디의 강우량은 아래와갓더라 (매평에대한우량) 경성을중심삼아 전선에 고루나린 비는 이로인하야 모를내지 못하든 각디에서는 일제히 모를내게될터인즉 만일 이번비를 돈으로친다하면 약일천만원의 가치가잇슬것이며 이 키압은경기디방을거쳐동편으로지나갓슴으로 이뒤에다시 더

釜山	九斗
木浦	九斗
京城	一石八斗三升六合
江陵	一石八斗
元山	五斗四升
龍岩浦	九升
雄基	九升

기다리든단비는 이십구일 아침부터나리기를 시작하더니 거의 조선전도에 흡족한비를주고 동일밤열두시경에 나리기를 그치엇다 경성에나린 우량이 매평에 한섬이 남엇스나 비록삼분 시간에나린비이나마 실로 부족업시 나리엇다할수잇다 … 에는 삿갓에우장두른 농군들의 밧분양을보게되고 시내에는 쏫가을소녀들의 고사리가튼손에 봉선화모종을보게되엿다

감을다가 나린비에

나린시간은 얼마길지 안으나 시내에는비로인하야 사고가 난곳이 잇엇다 이십구일 하오세시부터 시내연건동(蓮建洞)원남동(苑南洞)등디에잇는 뎐화이십오개소에 고장이드러서 작삼십일아참까지 회복되지못하얏스며 오래인력사를가진청계천(淸溪川)수표교(水標橋)에도 몸이상하ㅈ가량 … 나는바람에 다리가동세개가 부러지고 … 버스가시마침내교통차단을하게되야 일반은교통상 매오심한 타격을밧앗스며 시내락원동(樂園洞)에 … 나리는힘에 석축이두간통이나 문어젓다

仁川雨量治足

한평에석섬너말

고대고대하든비는전조선에나리어 대테도는 흡족한모양인데 인천(仁川)에도재작일오전의곱시부터 작일오전 계속하야 비가나리엇는데 총우량이 한평에 한섬너말넉되나되여 인천에서는매우흡족하다더라(인천)

쳣다 하여간이번비로전선의 한재는 커욱이 해갈이되엿다

본뎡관내 본뎡 경찰서관내에도 다소간피해가잇스나 직접손해는 별로업고 다만청계천(淸溪川)으로 들어가는 동리의 개천물이 붓어커서 일시거마는 물론사람도 다니지못하게 되엿든곳도잇스며 장차수리하려면 적지안은 공비가걸릴터이라는데 문어진곳은 황금뎡일뎡목(黃金町一丁目)에서 두군데에 기리가 네간반(四間半)수하뎡(水下町)에서 여섯군데에 기리가열세간이나된다더라

國民代表會續報

새로조직된긔관내용

국민대표회의는 개조파대표 사십여인은 불참한대로 지난칠일(七日)은 누리혁명운동에 한전임이라하야 고려중이며 오후두시에 법조계모처에서 계속개회하고 새로긔관을 조직하였는데 먼저대표중에서 국민의원(國民委員)으로 윤해(尹海)씨외 삼십이인을선거하야 그속에서다시 실디사무를집행할 의원을 선뎡한바 위원씨명은

內務委員申肅 外交委員金奎植 財政委員尹德甫 經濟委員金應燮

萬歲聲中閉會

대국긔에경례하고

위원을선거한후 대표일동은 태극긔에 최경례를하고 한국독립만세를부른후 칠일오후 네시경에폐하하얏더라(상해)

그외에 군무위원(軍務委員) … 가장중대한의원을 … 리청련(李靑天)씨가중임은군사행동에관한 … 더라(상해)

改造派의聲明

새긔관을반대해

이에대하야 개조파 오십여인은 「림시정부」의 새긔관 설립한 것을반대하는 성명서(聲明書)를 발표하얏더라(상해)

顧問三十餘人

박은식씨외삼십여인

국민위원회는 국민위원외에 박은식(朴殷植)씨외 삼십여인의 고문도 추천하야 매사를고문하야 일하게되엿다더라(상해)

無抵抗主義乎

공격에대한창조파태도

개조파의성명서와 그외 방면공격에대하야 창소파의 태도는 독족에게는 대항하지아니하

安岳에强盜

팔십로인을 단도로위협

황해도안악읍에서산리일백사십이번디(黃海道安岳邑瑞山里)에 사는 김용석(金應石)의 집에서 강도한명이 안마당에 돌입하야 주인을찾다가 마참 주인은어데를가고 주인의모친 팔십로인만 잇슴으로 단도로 위협을하면서 돈을내라하야 돈일백원을 가지고도주하얏는데 이급보를 들은 안악경찰서에서는수색에곡몰능이리더라(안악)

고 일만하야나가는 무더하주의 를슨다고 발표하엿더라(상해)

分離審理하게되엇든 金相玉關係公判

삼십일오전에공판개뎡

조선련디를놀내든 김상옥(金相玉)사건의관계자로 신병이위중하야 분리심리하게되리 혜수(李惠受)권우진(全宇鎭)의 두사람은 예뎡과가치 작삽십일오전열한시경에 경성디방법원 대칠호법뎡에서 그공판을열게되엿다 권우진은 신병이 대개쾌차되야 순순히 출뎡하엿스나 리혜수는 그신병이 아직도쾌차되지 못하야 병인차(病人車)를타고 겨우재판소에 출뎡하야 피고석에 … 원래 사건의중대한지라 방텽객들을 적지안을 사람이 입석다 … 은 여전히조수가치모혀들어 바 칭석은 입추의여디가업섯다 시간이되매 삼시(三矢)판사와대원(大原)검사와 지리서긔가 립석하야공판을 열엇더라

內容은잘몰낫소

김상옥의권고로우편배달을그만두고그의일을보아

먼저권우진으로부터심문을시작하엿다 주소청명의문답과 전과유무의 문답이잇슨후 재판장은 대정십일년십일월에 안홍한이가차커온일이잇는가?

비一무슨목뎍으로 온것을 알앗든가?

아지못하오一

가?김상옥과함께 오줄을 알앗는가?

비一대개알앗소

그들이 군자금 모집자인것을 알앗는가?

아지못하엿소

그때 김상옥도 함께와섯지一

비一그럿소

조선독립에대한말을들엇든가 듯지못하엿소

그날밤에김상옥 안홍한 윤익중 명설교두네사람니 피고의 집에서 조선독립으로론을 하엿지一

그런가보오

김상옥니 권총과폭탄을 가지고온줄을알앗든가

몰낫소一

피고집에서 안홍한이가 한달을류하다가 그후에는 명설교집으로보내엿지一

비一

로하엿는가一

안홍한의식비는 누구가 내기로하엿는가一

물론 안홍한이가 내겟지오 김상옥과 안홍한의집은 십일년 …

상옥과 안홍한의 집은 십일월에 경성역에서 차커왓지

비一그럿소

그속에는 무엇이 드럿는가

?자세하아지못하오 다만 금침파의복이 드러잇다고합듸다

그다음날 김상옥이가 그집에서권총을써내엿자

우리집위칭에 너하두엇소

아지못하오그집을어데다두엇든가

그집을 내여주엇지 그때에는 십이월 십칠일에 김상옥에게 권총이 드더잇는것을 알앗는가

가一그럿소

비그집은 두겹으로 차인드디지

김상옥의명령으로 집한을 여러번 차커갓지

년,월에 두번을 갓섯소

비 십일년십일월에 한번십이 일도잇섯지

김상옥과 함께 집한을차커간 비一그럿소

김상옥과 함의간것은 김상옥을 경계하여 주기위함인가?

아니오 다만 길만인도하여줄 뿐이오

아지못하오

가一

무슨까닭으로 김상옥이가 집을차커갓는지 알앗는가

김상옥이가 집한을 차커가서 무장무거순 물건을 가커오고 커한것을 아는가

비一무엇을 가커온다는말만드렷소

심일년 십이월이 삼십일에 조선독립에대한 불온문서를 병두에게 카커간일이 잇는가

김상옥의 십부림으로 윤익중 신화수 리혜수 명설교에게편지를 권한일이 잇는가

업소

비一

그편지가 무슨편지인것을 아는가一

아지못하오

김상옥이가 피고에게 쏠데업는 우편배달부를 단이지말고 자긔의 일을하여달나고 부탁하든가

그럿소

그월급으로 매달에 삼십원식을받기로하엿지

그럿소一

두번에 삼십원을 밧앗지

비一

권우진은 이것으로써 그심문을 마치게되엿다

李惠受는또延期

혼수상태에잇서천동생의뭇는말에도말이업서

리혜수의 심문이 시작되엿다 병석침대에 누어혼수상태에 잇기때문에 서긔가 엽헤가셔주소와 청명을 물엇스나 도시대답을하지못하엿스며 나종에는 피고의 친데리혜옥(李惠玉)양이 친히피고의 리혜수의 심문이 시작되엿다병

裁判所나으리 정사하라다미수

작뎡한후 그만폐뎡하엿더라

경성디방법원인천지청서긔추원

老婿郞이 聘母를打殺

바망이로커서

의주군광청면 풍하동정창호(鄭昌鎬)는 … 광성면주재소경관(光城面駐在所警官)은즉시 현장에 출장하야 조사한결과 정창호는 정신에 이상이생기여 그집을도 자긔의집에서 치는 도야지를 … 가족에게 인도하야 매장케하고 정창호는 격박하야 그가족으로 하야금 수직케 하얏다더라 (신의주)

淸凉里에屍體

전인인줄하다고

경성(京城)… 재작일오후에 … 려죽인일이 판명되야 … 더라

乘客에는

별로관계업다

금칠월일일부터조선철도국에서는 개정시간표로 실시하기로되엿는데 이에 대하야 … 차와 … 의치 …

郵便集配時間

럴도편의개정에따라

(개정시간은 철도편의개정과 …)

◇……모 임……◇

▲수양긔독교청년회 에서는금일밤 … 회를 여러 …

▲황해도평산군 … 직원 … 회 … 시

▲중앙례배당 … 에서는금일 …

(李惠受)부사 … 문예로 … 한다

注意할멧가지

改正戶籍令實施

電話分局의開始

鐵道時間의改正

오늘부터실시되는 고처지는세가지일

금칠월일일부터 새로 실시되는 것이 만은중 법령으로는 개정호주의할것은 렬차시간의 개뎡되는것과 경성뎐화가 광화문뎐화분국이 개설되는동시에 구역과 번호가 변경되는일이다 번경된 뎐화번호에대하야는 이미 번호의 … 부가되엿슴으로 뎐화를사용할때에는 그구역과 관할교환국을 생각하야 피차에곤난치안토록주의하여야될것이다

一日새벽

뎐화선을일제히박구어맨다

금칠월부터 개설되는 광화문뎐화분국에서는 만반준비가 정돈되야 새로양성된 교환수칠십여명과 가치 사무가개시되기만 기다리고 잇는터인데 교환수는삼십일 오후넘시까지에 새교환국에 출근하야 각교환대에 자리를 잡어안질터이다 그러나 뎐화선을 옴겨매는것으로말하면 자정이 지나야 (정식으로) … 압 … 시가량되야 사람들이 잠들고 교환면도 열이나스를밧게아니쓰게되는때를 기다려공부 오십륙명과 뎐화과공부 일백칠십여명이 전부출동하야 두대로나누어가지고 약이십분안에 일천삼백가량의 뎐화선을 전부 돌니일터이라더라

二年六個月

정우진에게구형

리혜수를 이다음심리하기로하후 대원검사는 권우진에게 대하야징역이년륙개월의 구형이 잇섯는데 이 … 몃분간 의론을하후에 정신상태가 다못업으로 신음하는소래 만나던 재판당은 고의 머리앱허가서 무슨말을무 뇌는떼를 기다려 다시심리하기로하엿다

今 日

七月一日

各校出場選手

녀뎡학교뎡쉼인

이번녀뎡구대회에출장한각녀학교의 선수는다음과갓더라(무순)

◇永明◇

(一)金孝愛 (二)李亘淑 金孝禮

◇好壽敦◇

(一)李仁順 (三)金玉炫 (五)徐只淳 (四)羅玉美 禹明 …

◇京城女高◇

(一)元信亮 (三)宋孝 (五)任德賢 … (二)李銀撤 (四)白有甘 …

◇進明◇

(一)洪淳姬 (三)元文男 (五)李金順 (二)兪玉姬 申玉 (四)尹貞姬 …

◇貞信◇

(一)安淑順 (三)朱玉順 (五)申貞淑 (二)李順仁 … (四)崔 …

◇培花◇

(一)崔恩妃 (二)金黃 …

◇淑明◇

(一)鄭南 (三)劉永愛 …

◇同德◇

(一)朱愛 (三)金淳培 (五)南宮 …

輕快히優美히

단비가새로개인하늘아레 뭇가는선수의예선전시작

理想的인日氣, 空前의盛況

이십구일아천부터나리든감우는 나행히와존시간동안에흡족하나마 리고다시녀지뎡구대회가열니는 삼십일오전한시부터비가그치고 구름이혀터지고 기시작하더니삼신 멀아천무러는 비가완전히 개이고마럿다 비로인하야 연긔될가 념려하던 각학교선수들도 아침 해빗의찬미를밧아가며낫열두시 가지나며부터 각기선명한 운동 복과 경쾌한보조로 운동장을향하야 모혀들기를시작하얏다 운동장입대에는오정전부터모혀 드는일반무의관람자와래빈으로 거의한거름도내어드되일여디가 업시되얏섯다낫열두시삼십분에 각학교대표자는 본부에 모도혀 상대렴추첨을안결과

(一)淑明‖貞信 (二)同德‖培花 (三)進明‖女高 (四)永明‖호스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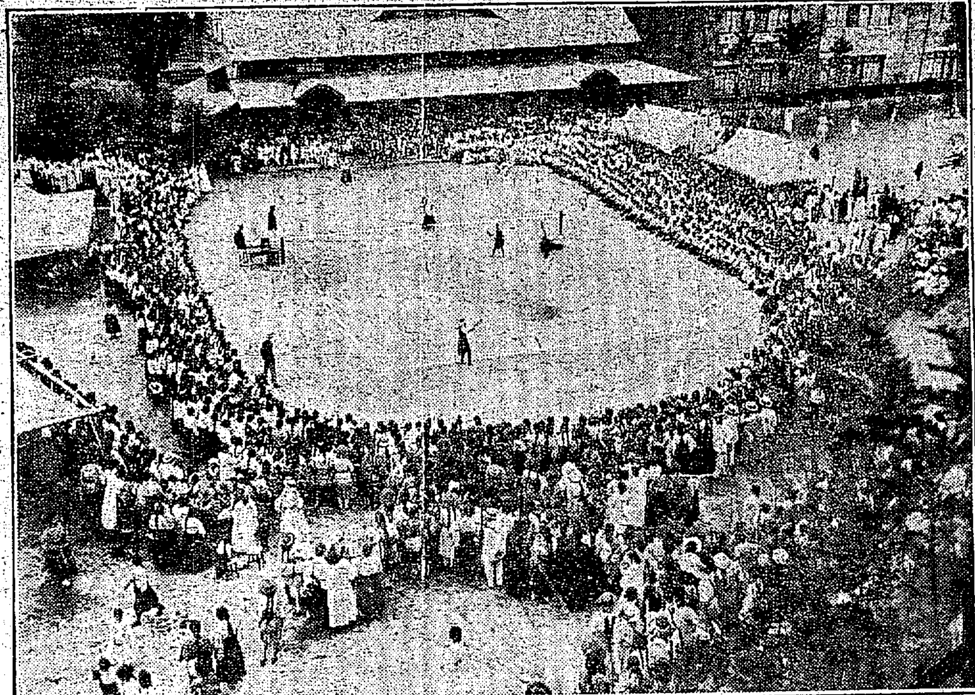
으로결뎡되얏는데 공주(公州)영 명학교 개성(開城)호스톤파 남 북이 경성에 맛나자웅을겨루게된 것이 만진귀한 현상이엇섯나 하오한 사뎡각이되매 숙명녀자고등보 통학교와뎡신녀학교사이의첫재 번예선전이 윤호병(尹鎬炳)씨주 심연한년(延鶴年)씨두심판에 개뇌나장내에 가득한뭇가튼후원 가차 올녀나왓섯다 관약한 유약 단의박수소리는 아리따운 음악 락게를을갑고 공을조차 날렵히 뛰는선수의 아담한 합시는 참으로 조선녀자계에서 처음보는반 갑은 현상이엇스며 특히 배화 학당 선수의 붉은머리동이와 덩 신녀학교의 불빗 리본 든장내의 이채를 발하더라

寄贈된賞品

삼십일발표이후

사수최 녀자뎡구대회에 대하야는 일반사회의 찬성을밧엇지 또이를찬성하는 의미로 상품을 기부하시는이도 만엇다함은 이 보와갓거니와 작보에발표한이외에 새로기증된상품은 여좌하더라

元昌洋靴店 洋傘 一百
京城織紐會社 三星票靴木 一疋
新 学 十疋
天道教月報社 사랑의선물 二部
東亞婦人商會 便箋 百卷



예선전이개시된때 ‖전선녀자뎡구대회전경‖

大氣豫報

時一	時二
晴	晴

今年最高 … (正午) 三三·九 … 平年最高 … 二七·九

◉더위표◉

◉휴지통

▲근래고회이라 … 네놈쥐에는 별벌을다생각하다 … ▲함경남도 함흥 … 예사는 도동비(鄕米城)이라 … 십이세된 청년은 … 라흥의 하나이라 … 각완곳에 … 하여보앗다 ▲커는 … 공을 못하오니 … 하여지이다 하고 … 하의 상소를하엿다 … 덕궁 … 서도그러한 … 히구케하라다가는 … 임으로 재녹이십구일에 … 을그대로 각하하엿다고한다

謹 告

日曜號延期

本紙日曜號는 記事의 形便上 一日을 延期하야 來月曜日發行 本紙에 添付發行 합

東亞日報社

麻疾과梅毒

오알고藥으로通知하시면 如何한數年의慢性이라도 全治法을 無料로進呈함

京城府 高麗商會

種蜂王蜂 特價分讓

振替京城一〇三七 主 李敦英 二牛島養蜂園

實質保證

清蜜(꿀 진)

臨時特價急賣

白蜜 二十圓 淸蜜 十八圓

時刻改正 列車增發

□七月一日부터全線列車時刻改正

□釜山奉天間急行列車運轉

□京仁線汽動車併用 (七月五日부터)

□其他各支線列車增發, 接續改善

滿鐵京城鐵道局

仁川府花房町三番地(仁川驛前)

米穀雜穀 原鹽其他 海陸物産 販賣委託 及買業

權泰環

當店의重要取扱品은 穀物, 鹽類, 海產品

電話 光化門 七一番

和平堂藥房

勸業債券賣出

割增金 百圓·十圓

賣出期間 七月二日부터十六日까지

抽籤 每年四月, 十月

賣捌所 當行本支店, 主要銀行, 金融組合

日本勸業銀行代理店 朝鮮殖產銀行

土産獎勵

有害有毒한酒菓代에「人蔘糖」信用第一

補陽元氣 諸病靈效 高麗白蔘

補胎調經 婦人增血 皮附白蔘

腦神經病人 消化不良 엑기쓰

花柳病中人蔘(梅毒病)及 熟地黃

日洋菓子代에「人蔘蒸菓」品質第一

開城 林家蔘業部 人蔘專門 本店

泣血鳥 (읍혈조)

(20) 李熙喆作 盧壽鉉畵

『그럴것이다ー 사십세되는 오늘날까지 이처(異性)이란 것을 대하여보지도못한 그로서는 엇절수업는일일것이다 더구나 그고독한방랑생활(放浪生活)은 그에게절제(節制)와 상식의면(面)을주지못하엿슬것이니 이커 그가너지를본 그날부터 그것을사랑하려고드는것도 역시엇절수업는 인정이아닐가……』

하고 선희는다시한편으로 생각하엿다

이러케 생각하고나니 선희는 청운이가 불상하여젓다 그러고 『엇더케 다른길로 그를 잘인도하야 그로하여곰 사랑의번민을 당하지안케하도록 해보겟다』고 스々로 맘에결뎡하엿다

선희는 자긔방에서 큰방으로 나왓다 본즉 청운이는몸을한쪽으로 비틀어 두팔을의자에올녀노코 그우에이마를대고 안저잇다 그는선희가나오는줄도 모른다 선희는겨々 한심한얼골로가만가만히거러 그엽헤가서 조금도서툴지안케 여전하게 손을드러 그엇개를가비압게울녓다 청운은 긔운업시 고개를들엇다 수염업는 그얼골은 술취한사람가치 엘개젓다 그러고숨소리는컷다 선희는그의등뒤에 섯기때문에 그의얼골이 엇더케되여잇는지는몰낫다 다만 그의기름ㅅ긔업는머리가 되는대로 솟넌것과 피ㅅ빗(血色)오른뒤ㅅ목만얼마동안 드려다보앗다 칼나에는뻬가새칼앗케무더잇다

청운이는 겨우 청신이든듯이 길게 한숨을한번쉬다 그러나말은업다 말할긔색도 아니보인다

『청운씨ー』

하고 선희는 속이타타히는듯한 가온데서 그를불넛다

『청운씨 나는 청운씨의커디와 그심정(心情)을잘압니다 그려고 그것을동정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란것은 못할것과 할것이 잇는데 그것을 잘생각하시어야지요……귀는 이미사랑하는남자가잇습니다……자ー 어서칭신차리십시요 마다손부인도 거의도라오시게되엿슴니다』

선희는 힘잇게 말을매젓다

청운는 그래도 무엇이무엇인지모른다 그는선희가 무슨말을 하엿는지도모른다 다만 그의전의식(全意識)은 또거운수증긔와가치되여버렷고 그몸은 말할수업시떨녓다

원만한 녀자갓흐면 이런경우에『별사람다보겟네』하고 다른방으로가던가 그러치아느면 맘이약하야『엇지나』하고 울던지 말것이다 실로지금 선희가당하는일은 소설이아니면 이세상에서는 상식뎍으로 잇지못할너무도이상하고 급한일이다 그러나 선희는 더욱정신을 가다듬엇다 그의맘는 아모악의(惡意)업는데서 아조령々하게되엿다 한참업는친고를 대한것가치 청운이를 생각하엿다

『청운씨ー』

선희는 또불넛다

『글세 생각해보세요청운씨는 년세가 엇더케되셧슴닛가 지금 마흔살이아니시애요……커갓흔것은 뭘비라고해도 조켓는데…………엇더케그런생각이시나마별수잇스릿가……자ー 어서정신차리십시요』

하고 선희는 엽헤잇는의자를하나부려너머컷다『쌍』하고소리가난다 마침그때에 문소리도낫다 아다손부인이 드러온다 선희는 빨니의자를세워노코『어머니지금오세요 매오치우셧지요』하고 마다손부인의외투를 벗겨주려고하며말한다

선희가 아다손부인의압헤 가서 『어머니』하고말할때에는청운이도이러섯다 그의얼골은 역시붉엇다 눈은심히 피곤한것가치보엿다

『오늘또뵈려고왓슴니다』청운는 시골사람가치 허리를굽으리고 좀부안해하는듯이 말한다아다손부인은

『아이고 그냥안저게십시요기탐니게해서 대단히미안함니다』

하고 모자를버서 선희에게주고 흐트러진머리를 가다듬으며 말한다

쉐사람은 어케와가치 다시안젓다

『어케는대단히 미안한일하나잇섯슴니다 그만 쌉박이커버려서…………나종 선화에게듯고 알앗는데ー 매오지내시기가곤난하다고요……그래ー 오늘 한번다시오시기를 기달녓슴니다 그런대 무슨일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예ー그저 엇던미국량반의집에 잇서보앗스면조켓서요 일미야 체험에맛는것이면 무엇이나다할수잇지요』

하고 청운은말한후 또자긔는몸이대단히 약하다는것까지 말하얏다

『안심하시요 밤만게시면잘될수잇슴니다 래일 오후에시음해서 녀자청경학원(聖經學院)으로오십시요』

하고 아다손부인은 말하얏다

선희는 청경학원으로 가는길을 청운에게 가라켯다

마다손부인은 어케예배당에서드러와 선희에게『어머니 오늘아츰 조선청년가 무엇하러 왓다갓는지 알으세요……무슨 빌ㅅ자리하나 어더주면 조켓다고 안그랫서요ー어머니 그사람불상하닛가 엇더케하나 주선해주세요』

하는 간청을드렷섯다

間島永新中學 二十日開校

[illegible]는北間島의要地로우리同胞在留의中心地인데五個所의中學校와十個所의男女小學校가잇스며學生總數는三千을過하는現狀이라距今五十年前에生活의破綻을當하고赤手空拳으로扶老携幼하야渡江越境한當時를回想하면實로誇張할만한事도多한바아즉도同地에서女子의中等教育機關이無하야一般의一大遺憾으로아던바今番永新學校學父兄과市內有志의熱烈한協贊及同情으로永新女子中學을設立하고小學科도附設하기로한바當地에數千圓의同情金이踏至하얏고또繼續하야各方面으로同情金을求하는中인데不遠校舍建築에着手할모양이며完成期는今秋期라하는바六月二十日에同市內耶蘇敎會堂에서開學式을擧行하고翌日부터永新中學校講堂에서臨時로敎授를始하얏는대學生이一百五十名에達한다더라(間島)

全北竹林補助 今般規程發布

全羅北道에서는竹林造成補助規程을六月二十五日附道令으로서發布하고發布日부터此를施行하게되얏는대規程의槪要는如左하더라

第一條 左의各號의一에該當한者에게는每年度豫算範圍內에서本規程에依하야補助金을交付함

(一)植竹或는鞭根을新植又는增殖하는者

(二)林內의雜草木荊棘、病竹、老竹其他不良竹等을除却하야適當한林相을整理하며瘦草及培土를하는者又는荒廢竹林에對하야林地의代替更新을行하는者

第二條 補助金은左의標準에依하야此를交付함

(一)前條第一號에該當한者에게는面積一百五十坪에對하야十五圓以內의比例로함(但百五十坪未滿은補助치아니함)

(二)前條第二號에該當한者에게는面積三百坪에對하야十五圓以內의比例로함(三百坪未滿은補助치아니함)

第三條 補助金의交付를受코저하는者는每年十月末日까지第一號樣式의申請書를道知事에게提出함이可함(樣式略)

前項의申請書는所轄府尹郡守를經由함이可함(以下各條는略함)(全州)

民大地方部 吉州에組織

咸北吉州郡에서는六月卄四日當地公立普通學校에서郡民大會를開하고民立大學期成會吉州地方部를組織하얏는대當日會合한會員은五百餘名에達하는盛況을呈하얏스며當選된委員은左와如하더라

執行委員長呂圓鉉 副委員長宋在鴻 常務委員金正熙 申介元 會計金保官 文書部黃鐘一 委員崔禹卿 鄭憲鎬 執行委員申泰岳 安世哲 崔泰元 崔成鎬 崔炳俊 李昇弘 金龍奎 李德化 趙東煥 林丙鍾 朴宗謙 李鍾烈 李鍾熙 崔福禹 朴齊醴 李鍾鎬 呂貞奎 金務熙 金仁淳 金河珉 李洛奎 金龍洙 林圭信 金川熙 金潤澤 李鍾與 徐仲厚 姜達周 而支部長朴履垶 梁昌奎 趙禮例 許鎭 呂相奎 李容奎 許成必(吉州)

北青進文會 宣傳劇興行

北靑進文會에서는本報北靑支局後援下에六月十八日부터七日間繼續하야趣旨를宣傳하기爲하야新派劇을興行하야社會의多大한同情을得하고또有志諸氏의寄附金도數百圓에達하얏는데同會의趣旨는即敎育을振興케함이며特히同會의經營으로就學치못하는兒童을爲하야鷄鳴學院을設하고中學敎育에努力하는中인대此를宣傳함이더라(北靑)

『포섯트』運動會 赤旗를高揭

露領『포섯트』에在住하는우리同胞의學校에서는六月十七日同地東南海岸廣場에서春季運動會를開한바當日會場의光景은中央에赤旗를高揭하고周圍에는萬國旗로써燦爛히裝飾하야朝鮮內에서는曾히見치못한裝飾을하얏스며競技에參加한者는生徒가五六十名이오靑年會員學父兄等이四五百名을算하야大盛況을呈하얏스며當日會場에는高麗共產黨의幹部崔虎林氏도臨場하야同運動會의主催者로賞品授與를行하얏더라(포섯트)

普校授業料 一圓으로增加

群山學校費會議는六月二十六日에群山府廳에서開催되얏는대授業料에對하야從來管內四十錢을八十錢으로管外六十錢을一圓으로할事를討議하얏는대原因은近來學校의經費는非常히膨脹되야소나地方費의補助는此와相伴치못함으로今般授業料를增徵하기는한것이라는대小學校의授業料도外一圓을徵한다함은朝鮮이아니면實例를見치못할事이라고一般은非難하더라(群山)

大田生繭販賣 總量萬三千貫

大田郡農會의生繭共同販賣場은六月三十日에開場할터인데今年은開場以來非常한盛況을呈하야川荷數量이一萬三千貫에達하고그價格이十二萬圓을超過하얏는대忠南의郡別發繭成績을見하면左와如하더라

上、靑陽、公州

中、扶餘、禮山、瑞山、洪城

普通、大田、牙山、唐津、燕岐、保寧、論山

下、天安、舒川(大田)

城津市民運動盛況

咸北城津市民主催와城津靑年會及本社城津支局의後援으로第一回城津市民大運動會를開催한다함은旣報한바와如히去六月二十一日에擧行한바定刻에濟城樂隊와城津樂隊를先頭로城津幼稚園生徒及一般市民男女와公私立男女學生等數千이列을作하야市內를一週하고午前十時에會場에入하야順序대로各種競技를始作한바第一日第二日을合하야八十餘種의運動을行하엿는데其中特히婦人競技로七、八種이有하야一般에게多大한感興을與하얏고衣服에風俗改良에對한假裝行列이有하엿스며第三日午後四時에는長距離『城津城峴間往復十哩』의『마라손』及脚戱決勝戰이有하야大盛況을呈하얏는대今番『마라손』參加選手는朝鮮人日本人露西亞人合一百名中最后의勝利를得한選手는如左하더라

『十哩마라손』一着 鄭日俊 一時二十分

同 二着 崔松彦 一時二十七分

同 三着 金松烈 一時三十分

脚戱部

一等金翊燁 ▲二等朴明活 ▲三等朴在猷(城津)

竹林學會新建築

黃海道安岳郡大遠面元龍里竹林學會는客年四月에設立되야爾來五十餘名生徒를敎授하든바中이며近來經費의困難이有하든中金仁泳氏는自己門中으로부터一般에提議한바有하야此를維持할金額이千餘圓에達하야目下校舍를建築中인바將來維持에對하야도多分히責任을負하얏다함은同學會의基礎는窂固하게되리라더라(安岳)

東萊溫泉落成式

東萊郡東萊面의經營인東萊溫泉浴場新築工事는旣히竣功되야六月二十三日朝鮮浴場後園에서落成式을盛大히擧行하얏더라(東萊)

定州都市金組申請

定州都市金融組合은六月二十二日創立發起人總會를開하고選擧委員十五人을定하야役員을選擧한바組合長林鍾□□□恒龍大野竹次郎賀仁三諸氏가當選되얏고方今設立許可를申請中이라더라(定州)

城津合校聯合運動

城津公立普通學校에서는該校校友會의後援으로去陰端午節을期하야學生大運動會를六月十九日同校運動場에서盛大히擧行한바同日은午前九時부터雨天임을不拘하고同校樂隊及城津樂隊를先頭로公私立男女學生千六七百名이市內를一週하야士氣를鼓揚하얏고今年은特히官私立學校가聯合하야一層盛況을呈하얏더라(城津)

德源郡廳新築移轉

客年以來로元山府內讓地洞에新築中이든德源郡廳은今般落成되야六月二十五日新廳舍로移轉하얏다더라(元山)

平南勸業課長會議

平安南道廳에서는六月卄六日부터同二十七日까지同會議室에서各郡勸業課長會議를開催하얏는대議事는副業品展覽會開催其他에關한것이라더라(平壤)

价川書堂講習會

价川郡廳에서는管內書堂先生을召集하야七月五日부터一週日間豫定으로書堂講習會를開催한다더라(价川)

江界市民脚戱會

平北江界市民의主催脚戱運動會는旣報와如히六月十九日卄兩日間射圍洞에서開催되얏는대盛況을呈하얏는데大人一等桂鶴集 二等尹泳璞 小人一等朴昌鉉이더라(江界)

主日校聯合運動會

平南江東郡元灘面南京里蘇敎幼年主日學校의主催로六月十八日大同郡柴足面龍花里에서六個所의主日學校聯合大運動會를開하얏는데參加團體는如左하며頗히盛況을呈하엿더라

江東郡元灘面南京里 幼年主日學校

大同郡柴足面龍花里 幼年主日學校

同 表垈里 幼年主日學校

同 三聖里 幼年主日學校

同 聖支里

同 鐵峯里 幼年主日學校

(平壤)

順天月燈農民總會

全南順天郡月燈面農民大會에서는六月十八日에總會를開催하고任員을左와如히選定하얏더라

會長李鍾增 副會長朴宗根 總務張宅鎬 幹事金東昊 黃鍾淑 李□□ 書記李正浩 評議員姜化勲 顧問李賢成 蔡元述(順天)

海養對米信庭球戰

仁川海養發成所對米信俱樂部의庭球競技는六月廿六日下午四時半부터發成所『코트』에서開戰하야初戰에는海養中南潤柏俱가優勢이엇스나後援의無함으로勝利는結局米信軍에歸하얏더라(仁川)

미가도對力士野球

六月廿七日下午五時부터仁川山根町共設運動場에서仁川『미가도』野球團과來仁中인力士野球團과의競技가잇섯는대結局二十四對九로仁川軍이敗하얏다더라(仁川)

第一公普財產公賣

元山府廳에서는第一普通學校의校舍를新築하기爲하야同校財産中에서左記土地와建物을七月五日府廳에서公賣에附한다더라

元山府明石洞四、垈三十九坪

同 五五、垈八十一坪

同 上洞一八七、垈三百八坪

同 建物五十八坪五合

同 上里二洞二三、田六十六坪

同 一二九、田八二坪

同 龍洞 六〇、建物九坪

(元山)

韓氏興學紀績碑

中和郡唐井面松塢里居韓敬源氏는同面內에敎育機關이無함에鑑하야昨年中에私設講習所를設立하고五千餘圓을投하야校舍를建築하고講師를招聘하야靑年子弟를敎授함에努力中인대現在學生이一百五十餘名에達하며夜學生이四十餘名에達하는盛況인바一般學父兄及其他有志諸氏는氏를爲하야興學紀績碑를建立하얏더라(中和)

吉州各校聯合運動

六月二十日吉州에서는當地公立普校、商業學校、公立小學校、私立雄城幼稚園의聯合運動會를西門外運動場에서開催한바午前九時부터男女學生의快活한各種運動과幼稚園兒童의天眞爛漫한遊戱는觀衆의喝采를博하얏는데當日觀衆은一千八百餘人에達하야盛況을呈하얏더라(吉州)

●橫川面東興校運動 咸南永興郡橫川面私立東興學校에서는去陰五月四日에運動會를開催하얏는대特히該面長金良俊氏는今般負費의一切를自擔하얏더라(永興)

●姜奎亨氏假出獄 平南德川郡德川面邑南里姜奎亨氏는過般治安妨害罪로平壤地方法院에서三年懲役에處한바되야京城刑務所에서服役中이든바六月十九日에假出獄되얏더라(德川)

各地青年團體

東萊青年會總會

東萊靑年會에서는六月二十四日同會館에서第四回定期總會를開하고文藝部幹事金德洙氏의司會下에前會々錄朗讀承認及會計報告、鄕黨가有한後任員을左와如히改選하얏더라

總務部幹事金友三 文藝部幹事李鍾撚 娛樂部幹事尹炳仁 運動部幹事金容璨 總務部庶務李琪權 時鳳(東萊)

가나다俱樂部總會

蔚川가나다俱樂部第一回定期總會를六月二十二日午後三時蔚川郷校에서開催하고任員을如左히選擧하얏더라

會長劉錫浴 副會長金永淳 總務安錫哲 書記安錫祚 金琪柱 會計金景柱 朴應善 蹴球主將元甫勳 庭球主將朴燦其(蔚川)

順天青年任員會

全南順天地方靑年會에서는六月二十日에臨時任員會를開催하고左記事項을決議하얏더라

一、義捐金徵收의件

一、義捐金徵收委員으로朴勝奎 金顯熙兩氏를選擧(順天)

元山青年衛生講演

元山靑年會의主催로府內旗石洞禮拜堂에서六月二十六日下午九時에衛生講演會를開催하얏는대當夜聽衆은三百餘名에達하야盛況을呈하얏더라(元山)

西鮮少年蹴球大會

日時 七月九、十兩日間(雨天順延)

場所 安州西門外薩水俱樂部運動場

參加金 一圓

申込期 七月六日午後五時까지

申込所 安州建仁里朝鮮日報支局

場所 安州西門外東亞日報支局

選手身長五尺二寸에限함

主催 安州薩水俱樂部

後援 安州基督勉勵靑年會 朝鮮日報社安州支局 東亞日報社安州支局

●六月廿九日부터新寫眞提供

▲米國유니버샬社傑作 文藝映畵 들에피는꽃 全七卷

▲米國유니버샬社作 第六回大魔王 全十八篇三十六卷中第十一、十二篇四卷上場

▲米國유니버샬社作 怪漢은누구냐?

▲米國유니버샬社映畵 西部劇 주먹의雨 全二卷

▲米國유니버샬社作品 實寫 國際時報 全一卷

▲米國유니버샬社作品 喜劇 候補者二人 全一卷

七月一日부터午正八時開演

京城授恩洞 特約 團成社 電話(本局)九五九番

六月三十日(土曜)부터 新寫眞提供(五日祭換)

松竹키네마會社撮影 寫劇 長良川의鵜飼 全一卷

◇米國마ー메이드映畵 喜劇 出鱈目 全二卷

伊太利후얼드映畵 悲劇 愛의勝利 全八卷 에다리아알미덴데만지니夫人主演 原作及脚色마리오알미탈氏

連續 金剛石의秘密 全十五篇三十卷內 第十一篇過去의戀 第十二篇恐怖의家 第十三篇絶望의焰 六卷上場

京城仁寺洞 松竹特約 朝鮮劇場 電話本局三六二〇番

廣告 七月一日부터光化門(九八四)番으로變更됨

祝昌平分所設置

潭陽郡昌平面三川里 高光駿

潭陽郡昌平面三川里 高光馴

潭陽郡昌平面三川里 高厦柱

潭陽郡昌平面龍水里 高光彬

代書業 韓彩均

潭陽郡大德面 面長 宋□□ 面書記 呂□□ 李□□ 李□□ 金□□

潭陽郡南面芝谷里 鄭雲澈

昌平面職員一同

潭陽郡昌平面鷲月里 金煉

潭陽郡昌平面三川里 高光熙

潭陽郡古西面東雲里 玄在哲

潭陽郡南面芝谷里 鄭□鍾

祝三千浦分局設置

慶南三千浦 布木商 李章春

慶南三千浦 米穀商 朴重翊

慶南三千浦 乾材局 林文玉

慶南三千浦 回泰醫院 院長 孫□淡

慶南三千浦 姜予秀

慶南三千浦 綢緞布木雜貨商 金守範

慶南三千浦 商業 雜貨商 金太明

慶南三千浦東錦里 主 馬成守

慶南泗川郡南陽面事務所 職員一同

慶南三千浦 普通學校同窓會 會長 金□□ 會計 金□□

慶南三千浦面勒島里 金洪允

慶南三千浦 金基業

慶南三千浦 興一洋服店 主 朴敬仲

慶南三千浦面里 張鳳連

慶南三千浦東里 醫生 裴孝淳

慶南三千浦西竹里 朴道□

慶南三千浦面東錦里 崔斗業

慶南南海郡昌善面所 面長 姜龍燮

慶南南海郡昌善面所 會計員 梁在穠

慶北大邱京町 初東明

慶南三千浦 鄭□□

慶南三千浦 布木商 孫□安

慶南三千浦 米穀商 張平五 姜道秀

慶南三千浦 晋興義塾 職員一同

三千浦公立普通學校學父兄會

慶南三千浦 三千浦普通學校同窓會

慶南三千浦郵便所 所長 龜岡一

慶南三千浦 米穀及肥料各種卸小賣 三千浦精米所

慶南三千浦 三千浦金融組合

慶南三千浦 各種帽子製造洗濯裁縫專門 徐太甲

慶南三千浦 後藤醫院 院長 後藤又八

慶南三千浦面兩浦里 朴駿洪

慶南三千浦上東里 金華烈

慶南三千浦 三英幼稚園 園長 朴彩奎

慶南三千浦 三千浦靑年研究會

慶南三千浦 綢緞布木商 朴斗元

慶南三千浦 壽一醫院 醫師 朴永周

慶南南海郡昌善面東大里 寫眞業 金錫均

慶南三千浦面事務所 職員一同

慶南三千浦 和洋雜貨陶器ランプ類學用品一切 永泰商會

慶南三千浦 張鷹相

慶南三千浦 米穀商 三興商會

汽車時間

[illegible]

ClibPDF - www.fastio.com